## 월/요/광/장

김영용

# 복지정책, 잘 굴러가게 하려면

12·19 대선을 앞둔 후보자들의 복지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유력한 세 후보가 대체로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당선 후 실제로 잘 굴러가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은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경제의 원활한 운행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그 기능이란 수요와 공급의 변동 상황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정보 전달 기능, 가격 변화에 대응하여 참여자들이 행동을 조정하도록 하는 유인 제공 기능, 그리고 각자가 소유하는 생산 요소에 따라 소득을 얻게 하는 소득 분배 기능의 세 가지다.

복지 정책은 가격의 소득 분배 기능을 다른 두 기능과 분리하여 정부가 시장에서 이뤄진 소득 분배를 좀 더 고르게 하고, 저소득층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 분배 기능은 정부가 하고, 다른 두 기능은 가격이 하도록 하면 세 기능은 모두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의 일부를 자신이 가지지 못한다면 가격 정보에 반응하여 행동을 조정하는 유인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지주의자들은 흔히 "분배 방식이 생산을 결정한다"는 명제를 거스르는 오류를 범한다. 또 복지정책이 일단 도입되면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속성을 가진다. 민주사회에서 복지 수혜자들도 모두 투표권을 가지므로 지출을 줄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복지 지출의 확대와 일할 유인의 감소는 국가 재정을 파탄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복지 지출 증대→일할 유인 감소→생산 감소→소득 감소→재정 수입 감소→재정 파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복지 국가로 널리 알려진 스웨덴은 1870년 세계경제의 0.6%, 1950년대에는 0.9%를 차지했다. 그러나 1950년대 복지 국가를 선언하면서 2000년대에는 0.5%로 떨어졌다. 복지 지출의 증가와 과도한 세금이 원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세대 간 소득과 부의 이전에 따른 갈등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오늘의 복지 지출은 다음 세대의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그리스의 젊은 세대들이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것은 복지 수혜자와 부담자 간의 갈등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그렇다고 복지정책을 전혀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 정책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며,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복지의 대상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국한하는 것이다. 즉 성별, 나이, 계층 등과는 무관한 선별적 복지정책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노동력이 없거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최소한의 생활도 하기 어려운 노인과 청소년 가장 등의 가난한 가계들이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12·19 대선 후보들의 복지 공약을 보면 온통 장미 빛이다. 재원 마련책도 궁하기 짝이 없다. 부자 증세를 들먹이지만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세율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과세 대상 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바꾸거나 해외로 이전하여 세금을 회피한다. 법인세를 높이면 기업은 국내 투자를 해외 투자로 전환한다.

한국은 이제 1인당 소득 2만 불을 넘어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다. 이 시점에 복지의 늪에 빠진다면 한국경제는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다. 대선 후보들은 나눠주기식의 복지 정책으로 유권자들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복지 지출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며, 항구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최근 일본의 민주당이 집권 시 약속했던 복지 공약에 대해 사과한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유권자들도 당장의 사탕발림에 현혹되지 말고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긴 안목으로 각 후보의 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전남대 교수·경제학〉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사설

# 비엔날레 '스쳐가는 미술쇼' 안되려면

아시아의 대표 미술축제인 제9회 광주비엔날레가 66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11일 막을 내렸다. 올해 광주비엔날레는 '라운드 테이블'(Round Table)을 주제로 아시아 여성감독 6명이 공동기획하는 등 아시아의 정체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전 세계적으로 200여 개의 비엔날레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의 '넘버 1' 다운 차별화된 시도였다는 평이다.

11일 광주비엔날레 재단에 따르면 올해 비엔날레를 다녀간 관람객은 약 46만 여명(유·무료 관람객 포함)으로 목표치인 50만 명에는 못 미쳤다. 유료 관람객은 21만1000여 명으로 8회 대회의 27만 명, 7회 대회의 28만 명에 비해서도 훨씬 미흡한 성적이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과 달리 입장권 강매 없이 자발적인 관람객이었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비엔날레를 바라 보는 미술계의 시선은 호의적이지 않다. 무엇보다 '임팩트' 있는 작품들이 많지 않아 '이슈 메이킹'에 실패했다. 올해 저조한 관람객 수가 이를 반증한다.

비엔날레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시대정신과 전시 패러다임의 창출을 우선시한다. 너무 앞서가거나 튀는 작품, 제작비는 많이 드는데 판매할 수는 없는 작품들을 비엔날레를 통해 볼 수 있는 게 그 때문이다.

게다가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인프라로서 지역의 문화지형을 넓혀왔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매번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시민들의 문화마인드를 높이는 프로그램과 관광마케팅 개발은 뒷전이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비엔날레=스쳐가는 미술쇼'라는 말이 나와겠는가.

재단은 비엔날레의 정체성을 지키되 대중들과 교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제아무리 국제적인 축제로 명성을 얻더라도 지역민들이 외면하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

# 해도 너무한 이명박 정권의 호남인사 홀대

이명박 정권의 지난 4년 9개월을 돌아다보는 호남민의 심경은 그야말로 허탈하다. 인사는 물론 각종 국책사업에서 이 정권의 호남 홀대가 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장관급에 호남 인사들이 철저히 배제된데다 정부 부처 고위직에도 호남 인물을 찾기 어렵다. 청와대 비서관급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호남 출신들에 대해 일정 비율을 유지해왔던 경찰 고위직 인사도 예외가 아니라니 유례가 없는 일이다.

현재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소속된 총경 45명 가운데 경무관 심사 대상자는 단 1명 뿐이며, 서울이나 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심사대상자에 오른 이 지역 출신 총경도 5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역 출신 경무관 수가 적으면 '경찰고위직 인사 소외'의 여파가 이 정부에만 그치지 않고 그 이후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과거 경찰 인사에서 적어도 '호남 3, 영남 4, 수도권·충청 3'이라는 나름의 원칙이 지켜졌지만 이 정권에서 완전히 파괴된 것이다. 군사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인사 싹쓸이'인 셈이다.

주요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사업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J프로젝트가 수년째 방치되고, F1 대회도 지원은커녕 발목을 잡는 등 소외당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영남에 무려 17조 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들이 집중된 반면 호남은 그 5분의 1 수준인 3조4000억 원대에 불과하다니 분노마저 치민다.

호남 홀대는 현 정권이 정책기조로 내세운 공정사회와 공생발전과도 정면 배치된다. 특정 지역을 배제하거나 편중해서는 소통과 통합은 이뤄질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실패'로 낙인 찍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따라서 호남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전략적 선택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홀대를 당할 수만은 없지 않는가.

## 법조칼럼

# 법정에서 느끼는 몇 가지

최수환

# 몇 년 전의 일이다. 6~7년 전 같은 데도 기억이 선명하지 않으니 세월 앞에 장사는 없는 모양이다.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미국에서 1년 정도 유학을 마치고 돌아 온 동료 판사가 필자에게 "미국 신문은 사실(Fact)를 위주로 기사를 쓰고 판단은 독자에게 맡기는 편인데, 우리나라 신문은 제목을 너무 선정적으로 뽑을 뿐 아니라 기자의 판단이 기사에 많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그 무렵 어느 신문을 보다가 법원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같은 면에 나란히 실린 두 기사였다. 한 기사의 제목이 '정신 나간 사법부'였던 것 같다. 기사 내용은 법원 직원의 잘못에 관한 것이고, 내용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제목이 너무 컸다. 과했다.

또 한 기사는 법원 판결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기사 말미를 보니 "피고인 한 명은 무혐의 판결을, 또 다른 피고인 한 명은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적었다. 무혐의나 기소유예는 '검사'의 처분이다. 잘못됐다. 여기서 필자는 자신을 돌아본다. 앞으로 판결문 작성할 때 더 신중해야겠다. 논리적인 비약, 추측성 판단은 피하자. 선악이 모두 다 나의 스승이다.

#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주었는데, 원고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투자금으로 받아 이제는 다 망했으니 원고에게 줄 돈이 없다고 한다. 빌려 준 돈이 아니라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것이다.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대여가 맞고, 원고가 억울하다"고 강조한다. 근거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원고와 여러 번 이에 대해 이야기했고, 무통장 입금증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무통장 입금증은 돈을 줬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고, 계약서에는 투자라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온다고 반문하니 별다른 답변이 없었다.

우스갯소리지만, "서양 사람은 핏대를 올리면서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되 계약이 이행된 뒤에는 웃으면서 악수하는 반면, 우리나라 사람은 대충, 그리고 즐겁게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중도에 원수가 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한다.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 가장 오래된 성문법으로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BC 1750년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이라는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 법전은 당시 상황에서 볼 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잔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뺨을 맞았을 뿐인데도 힘만 있으면 상대방의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무한 복수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함무라비 왕이 만든 것이다. 그 내용 중 일부인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해쳐서는 안 되며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고, 정의가 온 땅에 온전히 드러나며, 분쟁이 그치고 상처가 치유되도록 하기 위해 법을 돌판에 적어 세우는 것"이라는 부분에 눈길이 간다.

# 요즘 들어서는 "세상살이는 나그네처럼, 벼슬살이는 손님처럼(在世如旅, 在官如賓)"이라는 경구가 마음에 든다.

〈광주지방법원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장〉

## 기 고

# 순천 국제정원박람회로의 초대

나승병

지상에서 가장 온전하게 보존된 세계 5대 연안습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순천만에 28만 순천시민들의 꿈이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라는 결실로 피어나고 있다.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순천만 일원에서 펼쳐지는 꿈의 정원을 지역에 구현하기 위해 그동안 순천시와 28만 시민들은 온 열정을 담아 박람회 개최 준비에 전력을 다해 왔다. 정원박람회는 유럽에서는 150년의 역사를 가진 행사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 태국에 이어 4번째로 매우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된다.

세계인들에게 순천과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정원을 선보이게 될 이번 축제는 시민 스스로가 대한민국 생태수도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지역 환경을 지켜온 순천시민의 의지를 세계에 알린다는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자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라는 최종 결과물로 세계인에게 선보이게 될 순천만의 기적은 가히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낸 화합의 산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원박람회는 단지 관람객들의 눈을 잠시 즐겁게 하는 이벤트 행사가 아닌 생태와 환경을 매개로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새 산업 모델이다. 박람회 공사현장에는 제각기 다른 테마를 지닌 정원들이 속속 그 모습을 갖춰 가고 있다. 개막을 4개월여를 앞두고 주 박람회장 조성공사는 74%가 진행됐으며, 국제습지센터(92%), 수목원(63%) 등 전체적으로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주 박람회장에는 순천만 호수공원과 도시숲, 바위정원, 한방센터 등이 자리를 잡으며, 네덜란드, 프랑스, 중국, 영국 등 세계 10개국이 참여한 세계정원도 제 모습을 갖춰 가고 있다. 호주, 인도, 케냐 등 11개국도 실외정원과 실내정원을 조성하고 있어 공사가 끝나면 모두 72개의 정원이 생겨나게 된다.

박람회장에는 전체 36만2800여 그루의 나무 중 29만1360여(80.3%) 그루가 식재됐고 꽃과 풀 193만5000본(655종)과 잔디 21만8000㎡를 심는 작업이 한창이다. 박람회장 서쪽에 마련된 수목원에는 한국정원과 편백 휴양숲이 조성돼 피톤치드를 느낄 수 있고 언덕에 오르면 박람회장과 순천만, 순천도심을 전망할 수 있다.

박람회 주제관인 국제습지센터는 친환경 건축물로 도로변과 옥상을 언덕으로 연결해 잔디를 깐 지붕건축기법이 국내 최초로 시도됐다. 건물 전체 에너지의 42%를 태양광과 지열로 공급하게 된다. 특히 습지센터와 박람회장을 연결하는 '꿈의 다리'는 컨테이너 30개를 놓은 미술관으로 내부에는 전 세계 어린이들의 회화 작품 16만 점을 전시한다.

바위정원과 미인정원 등에 사용된 자연석 2만5000톤은 광양-목포간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구했다. 담양-함양 간 88고속도로 확장 공사현장에서 가져온 메타세콰이어 등 수목 7340주도 박람회장 조성에 유용하게 사용됐다. 가장 큰 볼거리인 순천만 호수정원도 토목공사를 마치고 잔디 식재 등 마무리 공사가 진행중이다.

정원박람회장 조성으로 순천시는 창의 인성체험(탬플스테이, 다도체험)과 생태체험(순천만 철새, 생물관찰 등), 역사 및 안보체험(왜성, 검단산성, 31사단)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청소년 생태 체험 학습장으로 거듭나게 된다.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로 대한민국 최고 생태체험장이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1조3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6700억 원의 부가가치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박람회를 전후로 1만1000여 개의 일자리도 생긴다. 이와 함께 남해안권의 조경·화훼·뷰티·한방산업 등이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전환기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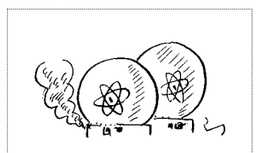
정원박람회는 많은 의의를 지닌다. 생태숲을 통해 도심팽창을 막아주고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한편 저지대 침수를 예방한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순천시가 국제적 생태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이자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 도시를 꿈꾸는 박람회로 이제 시작점에 있다.

세계인들에게 생태와 자연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완벽하기에 성공의 희망은 확실하다고 본다. 지역민들의 관심이 더해진다면 더욱 금상첨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 사무총장〉

## 無等鼓

# 원자력발전



인류 문명은 불의 발견에서 시작됐다. 불을 이용해 어둠을 밝히거나 추위를 막고 음식을 조리하는 것은 물론 흙을 빚어 굽거나 쇠붙이를 녹여 가공했다. 불의 발견과 이용으로 인간은 자연을 제어하며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

100여 전인 19세기에는 현대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제2의 불' 전기에너지가 실용화됐다. 이로써 밤과 낮 구분이 없는 24시간 문화가 형성됐고 실내와 실외, 지상과 지하 구분 없이 행동반경을 넓혔다.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은 지구 전체가 하나의 마을처럼 공동체를 이루는 '지구촌'을 가능하게 했다.

20세기 들어서는 '제3의 불'도 발견했다. 원자핵 반응을 인위적으로 제어하여 얻게 된 원자력이다. 하지만 이는 인류에게 양날의 칼이었다. '유용한 만큼 위험한' 양면성 탓이다. 날로 고갈되는 석유, 석탄을 대신할 새로운 에너지원이나 의학분야의 진단·치료 수단으로 각광받는 반면 핵무기로 사용되면 온 지구에 핵겨울을 불러와 생명의 씨앗을 멸종시킬 위험도 있다.

핵분열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도 마찬가지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사고는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고리 1호기가 1978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래 국내에도 모두 23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설비용량으로 치면 세계 6위 규모다.

영광에도 6기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주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확신은커녕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잦은 고장과 납품비리에 이어 최근 10년간이나 품질보증서를 위조한 부품이 공급된 사실이 드러났고 3호기의 경우 제어봉 안내관 균열을 알면서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원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면 아무리 안전을 강조하더라도 구두선(口頭禪)일 뿐이다. 가동 중단 요구나 대선 공약으로 '원전 폐쇄'까지 제시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정후식 정치부장 who@kwangju.co.kr

# 취업 위한 성형수술 성행…부작용 걱정된다

얼짱 시대, 잘생긴 것도 무기, 꽃미남 열풍…. 이런 건 TV에서 조장한 측면도 크지만 기업들이나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잘생긴 것을 굳이 싫다고 하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취업전략에도 이런 부분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기 둔화 속에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이른바 '면접 성형' 풍조까지 생겨난 것이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취업하기 위해 성형외과를 찾는 구직자들이 늘고 있는 것도 하나 이상할 게 없는 일이 돼버렸다. 면접에서 좀 더 호감 가는 인상을 주고 싶다는 게 그 이유인데, 이런 노력을 무작정 나무라기도 어렵다.

성형외과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경우 남성들은 대체로 또렷한 인상을 위해 코, 눈, 턱 성형을 고려한다. 면접 봤을 때 외모가 얼마나 호감 가는지 첫 인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취업준비 인터넷사이트에서 조사를 해보니 취업 준비생의 30%가량이 성형 수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외모도 중요한 요소이고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많았다.

특히 일부 연예인들이 보다 폭넓은 활동을 위해 성형을 했다고 밝히면서 이를 따라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결국 절박한 마음에 성형외과를 찾기는 하지만 성형시술을 무턱대고 하기 보단,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잘 되고자 시간과 돈 들여서 하는 성형수술인데 부작용이 가장 많은 부위는 바로 눈 성형이라 한다.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하여 눈이 짝짝이가 되거나 혹은 눈이 감기지 않는 현상이 그중 하나다.

그리고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감염 사고까지 적잖다. 위생적이지 못한 곳에서 수술을 하다가 부작용이 나타나고, 코 성형 같은 경우도 코를 너무 무리하게 높이게 되어 코끝의 피부가 얇아져 피부괴사까지도 일어난다고 한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취업난에 성형수술까지, 그리고 그로 인한 부작용 걱정까지 해야 하는 게 안타깝다. 취업난이 줄어드는 사회였으면 좋겠다.

▲홍예서·광주시 광산구 두정동

###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
| 편집국안내 |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홍보국 2200-541 |
| 〈대표 FAX 222-4918〉 | 문화생활부 2200-661 | 〈FAX 222-8005〉 | 〈FAX 222-0195〉 |
| 편집부 2200-649 | 여론매체부 2200-621 | 광고마케팅국 227-9600 | 독자서비스국 2200-551 |
| 정경부 2200-612 | 체육팀 2200-697 | 〈FAX 227-9500〉 | 〈FAX 227-9500〉 |
| 〈대표 FAX 222-4918〉 | 사진부 2200-693 | 디자인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사회부 2200-616 | 조사부 2200-571 | 기획사업국 2200-555 | 〈FAX 02-773-9335〉 |
| 〈대표 FAX 222-4267〉 | 전산팀 2200-685 |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